

법률정보원 이용행태에 기반한 주석서 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Commentary Information Services Based on the Usage Patterns of Legal Information Sources

원종삼 (Jong Sam Won)**

이지연 (Jee Yeon Lee)***

초 록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다. 법원은 개인과 개인의 분쟁, 개인과 국가 사이의 법률적 다툼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 사건의 당사자나 대리인들은 쟁점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조문을 놓고 다른 법률해석을 주장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법률해석은 통일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주석서의 견해에 대하여 법률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법률해석에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법률가가 재판업무 및 법학연구를 위하여 주석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최신의 법령과 판례, 법이론의 현재와 법률가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court has the responsibility to determine the final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 court hands down final decisions on personal disputes and conflicts between individuals and the state. Legal commentaries will stay true to their intention of providing diverse legal theories and enabling a unified legal interpretation only when law practitioners are allowed to discuss in depth laws, cases, and legal theories within the boundaries set by commentary authors. If law practitioners include the latest laws, cases, and legal theories as well as their opinions to existing commentaries in their judicial roles and legal studies, they will be able to obtain a unified legal interpretation without referring to other legal literature.

키워드: 주석, 주해, 주석서, 법률가, 정보추구행태, 정보요구, 집단지성, 법률정보원, 법률정보 서비스, 법률해석

commentary, annotation, legal commentary, law practitioner,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information needs, collective intelligence, legal information sources, legal information service, legal interpretation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3083499).

** 대법원 법원도서관 사서(wonjs@scourt.go.kr) (제1저자)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lee01@yonsei.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0년 2월 25일 ■ 최초심사일자: 2020년 3월 2일 ■ 게재확정일자: 2020년 3월 21일
■ 정보관리학회지, 37(1), 127-151, 2020. <http://dx.doi.org/10.3743/KOSIM.2020.37.1.127>

* Copyright © 2020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법률가는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법령, 판례, 법이론(교과서, 논문, 학설) 등 다양한 형태의 법률정보를 이용한다. 그중 주석서는 법률을 해석하고 관련된 국내외 학설이나 판례를 제시하는 중요한 법률문헌이다. 법률해석의 중요 법률정보원인 주석서가 책자 형태로 이용되고 있지만 통일된 법률해석을 위해 책자 간행 이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법학과 법률은 이론과 실무가 서로 보완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할 수 있다. 주석서를 통해 학계와 실무계의 입장에서 서로의 이론과 실무가 공유됨으로써 이를 완성할 수 있다. 주석서는 해당 법령의 편·장·절·조를 나누어 놓고 그 안에서 집필진이 구성되어 집필한다. 집필진은 최고의 실무경험과 학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항은 다른 의견을 듣고 나누며 새로운 법령의 제정과 개정, 판례와 법이론이 제공되는 사항을 즉각 반영하고 또 다른 이용자가 이에 대한 의견과 주장을 제공하는 가운데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낸다.

법률해석은 주석서에 대한 집필자의 내용을 존중하는 선에서 법률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법령, 판례, 법이론의 확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법률가가 주석서 저작자의 집필 내용을 존중하는 선에서 본문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강민구, 2003)을 통해 정확한 법률해석에 접근하므로 현재의 법의 상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주석서는 개정판이 간행되기 전까지 새로운 국내의 법령, 판례, 법이론을 확인 할 수 없어 해당 도서나 논문을 검색하여야 하고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아 개정내용과 해석 그리고 법률가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할 수 없다.

본 논문은 법률가가 주석서를 통하여 현재 법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통일된 법률해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석서 이용에 대한 법률가의 이용행태를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주석서 정보서비스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법률가가 직면한 법적 문제와 연구과제 해결을 위해 주석서를 이용하는 경우 법률가의 주석서 이용행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였다. 첫째, 재판업무와 법학연구 전반에 걸쳐 집약된 법률정보원으로서 주석서를 정의한다. 둘째, 주석서 내용 중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이 변경된 경우 법률정보 이용에 있어서 주석서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법률가의 주석서 이용행태를 분석한다. 셋째, 주석서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법률정보서비스 방안을 연구한다.

연구방법은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법률가들의 정보추구행태와 관련된 중요 이론들과 선행연구들을 조사하고 정보추구모형을 검토하였다. 둘째, 문헌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이론 및 모형 중 법률가의 주석서 이용에 대한 정보추구행태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여 검토하고,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법률가를 임의로 선정해 사전면담을 하였다. 이후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법률가를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semi-structured) 방식의 1:1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셋째, 주석서의 정의, 주석서 이용행태, 주석서를 통한 법률정보서비스 방안에 대해 47개의 설문항목을 작성한 후 법률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수집된 면담 자료는 내용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설문조사는 통계분석 프로그램(SPS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섯째, 면담 및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석서의 온라인 법률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1.3 연구질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 연구질문 1. 주석서는 법률가에게 어떤 법률정보원인가?
 - 연구질문 1-1. 법률가가 이용하는 법률정보원 중 재판업무 및 법학연구를 위해 사용하는 정보원은 무엇인가?
 - 연구질문 1-2. 법률가의 법률해석을 위해 국내외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이 집적된 법률정보원은 무엇인가?
- 연구질문 2. 법률가의 개인적 특성(직업, 근무연수, 전공, 전문분야)에 따라 주석서 이용행태는 차이점이 있는가?
 - 연구질문 2-1. 주석서 이용 시 Leckie 모형에서 언급하는 업무 역할(Work Roles) 또는 과업(Tasks)에 준하는 동기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질문 2-2. 법률가의 직업과 근무연수 등에 따른 주석서의 정보추구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질문 3. 주석서의 정보서비스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

- 연구질문 3-1. 주석서를 이용하는 경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연구질문 3-2. 법률가들이 주석서를 통하여 다른 법률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방안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2.1 법률정보 자원

2.1.1 법률정보의 정의

법률정보는 정보 그 자체로서의 법률을 일컫는 개념이다. 즉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법률적 현상과 문제들에 관한 자료들이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축적되어 정보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될 때 법률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수많은 법령, 판례, 법이론 기타 법률 관련 자료들을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관하여 의미 있는 상태로 조직 가공하였을 때 비로소 유용한 법률정보가 되는 것이다(문용호, 1998). 다른 한편으로 접근한다면 법령, 판례, 법률문헌 관련 정보를 국민 생활에 필요한 규범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하거나 이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법이론 등을 소개한 문헌을 말하고,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정보에 한정하여 법률정보라고 한다. 법률정보는 헌법, 법률, 조약 그리고 하위규정인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뿐 아니라 판결, 결정 등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원(法源) 일체와 그 외에 법에 관한 각종 정보의 일체를 의

미한다.

2.1.2 주석서의 정의

주석(註釋)이란 교과서와는 달리 법률의 조문과 관련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으로 법조문 중심의 입법 취지, 법이론과 판례가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주석서의 경우에는 많은 학자나 실무자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일정 부분을 집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교과서에 인용되지 않는 법이론에 관한 상세한 내용, 특히 주장의 근거와 비판 그리고 반론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고, 외국의 법이론이나 판례도 많이 소개되어 있다(전경근, 2004).

법학 및 법조 실무에서 주석서는 법률 규정의 해석에 대한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해석에 관한 모든 논의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정리함으로써 그 매듭을 짓는 역할을 한다. 또한, 법적 분쟁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석서는 확정된 판례이론을 정리해 주고 이론 내지 법이론을 가장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2.2 이용자 연구

2.2.1 주요 개념의 정의

정보행태(information behavior)는 정보추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능동적 및 수동적 정보추구와 정보이용을 포함하여 정보자원이나 정보매체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인간의 총체적 행태이다. 따라서 정보행태에는 타인과의 면대면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광고를 시청하는 것과 같이 주어진 정보를 활용

하고자 하는 의도 없이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포함된다(Wilson, 2000). 즉 정보행태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능동적 정보추구, 정보를 우연히 수용하는 수동적 정보행태, 의도적으로 정보를 수용하지 않는 정보회피 등 정보의 이용과 관련된 모든 행태를 포함하는 가장 상위의 개념이다(Case, 2016).

2.2.2 전문직의 정보추구모형

정보추구에 대한 정보이용행태는 일반화하기가 어려운데 이는 각각의 상황이나 전문지식 등이 다양하기 때문이다(이지연, 2006). 본 연구는 정보추구의 여러 모형 중 Leckie의 정보추구 모형을 토대로 연구설계를 진행하였다.

Leckie의 정보추구 모형 연구(Leckie, Pettigrew, & Sylvain, 1996)는 엔지니어, 의료 서비스 전문가, 법조인 등 서로 다른 전문가 집단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경험적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모든 '전문가'들의 정보추구행태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 정보탐색 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Leckie의 연구는 그들이 대표하는 전문성만큼 다양한 정보추구행태에서 일반적으로 유의미한 주제는 무엇이며, 이것이 전문가들의 정보탐색 모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Leckie의 정보추구 모형에서 인과과정은 먼저 '직무역할(Work Roles)'에서 시작하고, 직무역할은 '과업(Tasks)'에 영향을 준다. 전문가들이 일상 업무 중에 맡게 되는 역할과 그와 관련된 과업이 특정 정보요구를 유발하고 이로써 정보추구가 시작된다. 정보추구행태 자체는 '정보가 추구된다(Information is Sought)'라는

표지가 붙은 양방향 화살표로 표현하고, 정보추구과정의 최종 결과인 '결과물(Outcomes)'은 요구가 만족되고 작업이 수행되어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보원(Sources of Information)', '정보원의 인지(Awareness of Information)', '정보가 추구된다(Information is Sought)'로 피드백(feedback)되면서 모형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률가는 연구과제 및 쟁점사항이 부여되면 결론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법률정보에 대한 정보추구행위를 진행하면서 기존 연구결과들을 통합한다.

2.3 이용자 연구

법률가의 정보추구행태 분석은 <표 1>의 선행 연구와 같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 강조되었다. 법률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추구행태는 법률분야의 특수성과 법률정보 접근의 용이성이 낮아 정보추구행태 모형을 일반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요구 및 정보추구과정이 필요하다. 법률가의 정보추구모형은 여러 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연구하였으며 그 대상은 법률가 중심으로 정보추구행태를 제시하였다. 법률가의 정보추구행태는 법률정보추구행태의 경험적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구축된다. 정보요구는 다수의 개입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법률가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나이, 직업, 전문분야, 경력)은 물론이고, 정보요구의 보다 일반적 특성으로서 상황, 빈도, 예측성, 중요성과 복잡성이 정보요구에 영향을 끼치거나 구체화한 요소이다. 연구방법은 양적인 연구방법에서 소규모의 사례연구로 진행되는 질적 연구방법의 중

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법률가가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해결함에 있어 정보요구와 정보추구과정이 세분되어 연구됨을 의미한다.

3.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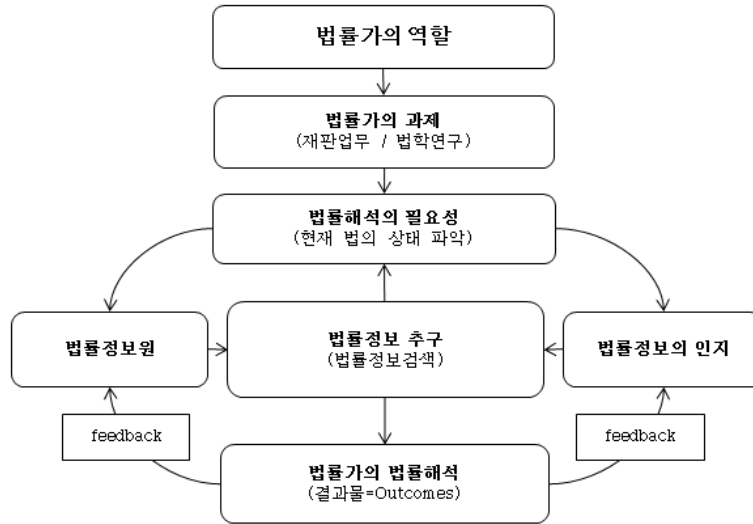
3.1 연구모형

법률가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는 전문가 정보추구행태 모형인 Leckie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그림 1>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Leckie의 정보추구 모형은 업무역할(Work Roles)에서 시작하여 과제(Tasks)에 영향을 준다. 업무역할은 '법률가의 역할'로 정하고 과제는 재판업무와 법학연구를 담당하는 '법률가의 과제'로 한다. 재판업무와 법학연구는 법률정보의 필요성을 갖고 현재의 법의 상태를 파악한다. 이후 국내의 법령, 판례, 법이론 등 법률정보원을 이용한다. 법률정보 추구과정은 기존에 집적된 법률정보원 활용과 새롭게 생성된 법률정보원의 인지를 통하여 법률정보 이용에 따라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수의 상호작용하는 변수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 법률정보 이용만족 여부에 따라 법률가의 정보이용행태는 반복하여 법률정보를 추구하며 연구결과물(Outcomes)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Leckie 모형이 전문직 종사자들의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근거로 구축되었으며 업무역할과 과제를 정보추구의 일차적 동기 부여자로 하였다. 법률정보추구는 법률가 개인의 직업, 근무연수, 전공, 전문분야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물론이고, 정보요구의 보다 일반적 특성으로서 상

〈표 1〉 정보추구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

연구자	정보추구모형, 연구방법 및 대상	연구 결과
김광진(1996)	양적연구 법관, 변호사	법조인의 법률서비스에 필요한 법률정보 이용행태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연구
Hong(1997)	양적연구 법률가	법조인과 법학자의 효율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도서관의 변화 강조
최미순(2007)	문헌연구 법조인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분석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시스템 설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사항 강조
김남희(2009)	문헌연구 법률가	라이브러리 2.0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도서관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제시
김정숙(2010)	Kuhlthau 모형 질적연구, 법전문생	정보탐색과정을 심층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여 법학도서관 정보서비스의 개선 방향 제시
김황우(2012)	양적연구 법전문생	도서관의 정보서비스를 외형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로 개발
김민규(2013)	Johnson 모형 양적연구, 법관	법률정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과 이용자 특성에 따른 차이 검증
주민지(2013)	Leckie 모형 질적연구, 법전문생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에서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방안 재정립과 개선 방안 제시
김지현(2015)	Leckie 모형, 질적·양적연구, 변호사	법률정보가 디지털 자원으로 변화하면서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와 법률정보서비스 분석
Vale(1988)	양적연구 변호사	인쇄물과 온라인 매체 특성이 각각의 정보매체 사용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가에서 접근성 강조
Hainsworth(1992)	질적연구 법관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광범위하게 이용하여 법적 환경의 범위 내에서 정보추구패턴의 증거를 찾음
Sutton(1994)	양적연구 변호사	변호사들의 법적 추론에 대한 정신적 모형을 이론화하여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Otike(1999)	질적연구 변호사, 법학자	변호사와 법학자의 정보요구는 업무유형으로부터 영향을 있음을 연구
Cole & Kuhlthau(2000)	질적연구 변호사	문제해결에서 변호사들의 정보추구행태가 소송과 관련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
Wilkinson(2001)	질적연구 변호사	수임 사건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정보원은 조직 내부의 비공식적 정보원을 신뢰
Makri(2008)	Ellis모형 질적연구, 변호사	변호사의 전자정보자원 추구행태에 대한 질적 연구
Winter(2008)	법률도서관 사서 문헌연구	블로그나 위키 등 소셜네트워킹 서비스도 법률사서의 참고봉사 업무로 확대
Makri(2008)	법학자, 변호사 Ellis	법학자와 변호사의 정보추구행태를 폭넓게 교차 비교하여 정보추구행태에서 보이는 차이점 연구
Thanuskodi(2009)	법과대학생 양적연구	법률정보의 출처와 정보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 진행
Rai(2013)	법학자 양적연구	법학자가 정보를 구축하는 과정을 더 잘 이해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적절한 지식 보유의 중요성 강조
Kadli(2015)	법학자 양적연구	법학 교수들의 정보욕구 및 정보추구행태에 대해 연구
Solomon(2016)	변호사 양적연구	법적 정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렌디피티(Serendipity)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연구



〈그림 1〉 연구모형

황, 빈도, 예측성, 중요성과 복잡성이 정보요구에 영향을 끼치거나 구체화하는 변수들이다.

최종 연구 결과물은 주석서가 법률정보 중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이 종합적으로 집적된 정보원이라는 사실을 Leckie 모형을 기반으로 법률가의 면담과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3.2 연구절차

법률가의 정보추구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설계는 아래의 〈표 2〉와 같이 주석서 이용대상자인 법률가 즉 법관, 검사, 변호사, 법학자를 표본으로 하였다. 정보추구행태 분석 절차는 면담 조사, 설문 조사 그리고 자료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3.2.1 면담 조사

본 연구는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를 법률

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음과 같이 표본을 선정하였다. 심층면담 후 개별 면담은 이메일을 통해 실시하여 법관 23명, 검사 2명, 변호사 15명, 법학자 17명, 기타(발행인) 1명에게 답변을 받았다.

면담 대상과 질문 내용은 〈표 3〉, 〈표 4〉와 같이 주석서 집필자, 발행자, 이용자로 나누어 면담하였다.

3.2.2 설문조사

설문은 47개 문항을 작성한 후 〈표 5〉와 같이 법률가 753명에게 2015년 8월 22일부터 2015년 9월 5일까지 이메일로 사전 설문 목적 공지와 함께 설문조사를 요청한 결과 173명에게 답변을 받았다.

본 설문 내용은 면담 항목을 기준으로 초안 작성 후 질문 구성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법률가에게 사전 테스트를 거친 다음 〈표 6〉과 같이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표 2〉 정보추구행태 분석의 연구절차

분석 대상	법관, 검사, 변호사, 법학자를 표본으로 선정
↓	↓
면담 조사	사전면담 4명과 이메일 답변 54명으로 총 58명 - 정보추구요소 파악 - 주석서 집필, 이용
↓	↓
설문 조사	정보요구 및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답변으로 총 173명 - 주석서 이용 정보의 일반적 사항 및 정보수집 - 주석서 이용 행태 조사
↓	↓
자료 분석	법률가의 정보추구행태 분석 - 기존 정보추구행태 모델 기반의 특성 파악 - 질적연구 결과와 양적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	↓
제안	발전방안 - 주석서 이용 행태 분석을 통한 법률정보 서비스 방안 모색

〈표 3〉 면담 대상

범 주	내 용
집필자 면담	- 면담 대상 인원에 대하여 주석서 집필자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소속과 연락처(이메일 주소)를 파악한 후 이메일을 발송하고 답변도 이메일로 받았다.
발행자 면담	- 한국사법행정학회, 박영사, 로앤비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사법행정학회와 로앤비는 면담 항목을 보내어 작성 완료 하였고 박영사는 집필자에게 받았다.
이용자 면담	- 면담 대상 인원은 주석서 이용자 소속과 연락처(이메일 주소)를 파악하였다. - 주석서 이용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이메일 발송 후 답변을 받았다.

〈표 4〉 면담에 사용한 질문 내용

범주	질문 내용	관련 연구
일반	주석서의 특징	김증한(1973), 락윤직(1992)
	주석서의 장점	김증한(1973), 락윤직(1992), 정상조(2007)
	주석서를 통한 법률가의 융합(집필) 방법	김증한(1973), 락윤직(1992)
집필	주석서의 원고 집필과 토의	김증한(1973), 락윤직(1992)
	주석서 집필은 장기적으로 누가 해야 하는지?	정상조, 박성수(2010)
이용	주석서는 어느 단계에서 이용하는지?	한승희, 이지연(2006), Leckie(1996)
	주석서에 해당되는 새로운 법률정보 관리는?	Hainsworth(1992)
	주석서 이용에 따른 단점은?	Hong(1997)
	주석서의 갱신 방향은?	Hong(1997)
	주석서의 온라인 서비스 방법은?	Vale(1998)
	주석서를 집단지성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Leckie(1996)
	온라인 서비스할 경우 주석서 서비스는 누가 해야 하는지?	Ellis(1989), Wilkinson(2001)
발전	주석서 서비스를 통한 법률가의 협력 방안은?	Hainsworth(1992)
	이용 시 의견과 토론에 적극적 참여 여부?	Leckie(1996)
	기타 주석서 이용에 따른 발전 방안?	Leckie(1996)

〈표 5〉 설문 요청 및 응답 현황

	법 관	검 사	변호사	법학자	합계
설문요청	302	173	181	97	753
설문응답	45	56	40	32	173
회 수 율	14.90	32.36	20.09	32.98	22.97

〈표 6〉 설문지 구성 내용

설문조사 범주	설문지 내용	관련 연구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소속, 성별, 직업, 근무 연수, 전공, 학위, 최종 학위 취득 국가, 법학 중 관심분야	한승희, 이지연(2006) Chancellor(2010: 2015)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주석서 이용행태	가. 어디서 이용, 나. 주석서의 장점, 다. 주석서의 단점, 라. 집필자, 마. 장기적 측면에서 집필자	Hong(1997)
3. 주석서를 통한 법률해석의 해결 정도	가. 주석서 이용 목적, 나. 이용 횟수, 다. 문제 해결 정도, 라. 해결되지 않을 경우 참고문헌	한승희, 이지연(2006) Leckie(1996)
4. 법률해석에 있어서 주석서의 중요성	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투입되는 시간은, 나. 주석서 이용 비율, 다. 법률가의 통일된 주석 필요 여부, 라. 법률해석 시 가장 먼저 이용하는 정보원, 마. 필요한 법률정보는 어느 정도 참고하는지	김나원, 박지홍(2009) Chancellor(2010: 2015)
5. 국내 주석서와 외국 주석서에 대한 법률가의 이용 정도	가. 이용 경험 여부, 나. 이용한 경위, 다. 우리나라와 차이점, 라. 외국의 온라인 주석서와 우리나라의 차이점, 마. 새로운 법률 제공 방법, 바. 개정판 간행 방법, 사. 법률가의 협력	Hainsworth, Melody(1992)
6. 주석서 검색과 이용	가. 의견 일치 여부, 나. 정보수집 시 고려사항, 다. 이용 시 겪는 어려움, 라. 법률정보의 새로운 개정 여부 확인	Leckie(1996)
7. 주석서 서비스 유형	가. 이용자 입장에서 변화는, 나. 오프라인 온라인 서비스 방향, 다. 오프라인 온라인 선호도, 라. 인쇄물을 선호하는 이유, 마. 온라인을 선호하는 이유	Ellis(1989) Wilkinson(2001)
8. 온라인 주석서의 서비스 제공 방식	가. 주석서 개정판 작업은, 나. 어디서 이용하는지, 다. 어떻게 이용하는지	Chancellor, Renate(2010: 2015)
9. 주석서 이용과 활용도	가. 학술적 교류 확대, 나. 구체적인 서비스 확대 방안, 다. 법조인의 쟁점사항 공개 여부, 라. 집단지성의 변화, 마. 소극적인 경우 방법, 바. 기타협력 방안에 대한 자유의견 기술	Leckie(1996)

법률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주석서 이용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 〈표 7〉과 같이 173명으로부터 설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본 연구는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서 SPSS WINDOW 20.0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그리고 기술통계와 카이제곱 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4. 분석 결과

법률가의 역할에 대해 Leckie의 정보추구 모형(Information Seeking Model)을 기반으로 〈그림 1〉과 같이 법률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흐름과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가의 정보추구행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률가의 역할은 재판업무와 법학연구를 위하여 통일된 법률해석으로 부여된 과제의 연구

〈표 7〉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173)

분석 항목		빈도	퍼센트	분석 항목		빈도	퍼센트
소속 기관	법원	45	26.0	근무 연수	5년 이하	38	22.0
	법무부(검찰)	56	32.4		5 ~ 10년	23	13.3
	변호사회	40	23.1		10 ~ 20년	62	35.8
	법학전문대학원	32	18.5		20년 이상	50	28.9
	전체	173	100.0		전체	173	100.0
성별	남자	133	76.9	학부 전공	법학	141	81.5
	여자	40	23.1		비전공	32	18.5
	전체	173	100.0		전체	173	100.0
직업	법관	45	26.0	최종 학위	학사	79	45.7
	검사	56	32.4		석사	57	32.9
	변호사	40	23.1		박사	33	19.1
	법학자	32	18.5		기타	4	2.3
	전체	173	100.0		전체	173	100.0
				전문 분야	민·상사	74	42.8
					형사	66	38.2
					특별	33	19.1
					전체	173	100.0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률가는 국내외 법률정보원을 통해 법률해석의 필요성에 따라 법률정보를 계속적으로 추구한다. 여기서 주석서는 현재의 법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법령, 판례, 법이론의 법률정보원을 검색하며, 과제수행에 따른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을 위해 관련 기록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선례를 찾아 재판이론의 제시와 법이론의 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므로 법률해석에 따른 최종 연구결과물을 도출한다.

위에서 수행된 정보추구행위가 법률정보원으로 구축되어 다양하고 통일된 법률정보 해석에 따른 지식이 축적된다. 법률가의 역할은 재판업무 및 법학연구와 관련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국내외 법령, 판례, 법이론을 기반으로 과제를 수행한다. 과제수행은 법률정보

원의 집적과 활용, 법률정보원의 생성과 인지를 통하여 법률정보 이용 만족 시까지 정보를 추구한다.

■ 연구질문 1. 주석서는 법률가에게 어떤 법률정보원인가?

주석서는 교과서와 달리 법률의 조문과 관련된 내용을 법조문 중심으로 입법 취지, 국내외 법령, 판례, 법이론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교과서에 인용되지 않는 학설에 관한 상세한 내용, 특히 주장의 근거와 비판 그리고 반론이 자세하게 소개된 법률정보원이다.

• 조사내용 1: 개인적인 특성의 주석서 이용 행태

법률가의 주석서 이용행태는 첫째, 전체적인 흐름 파악, 국내외 법령, 판례, 법이론 소개,

쟁점사항 해결과 법리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주석서의 단점은 인쇄물로 출판되어 최신 법령과 변경된 판례 등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셋째, 현재 주석서 집필은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법관과 법학자 등이 집필하고 있으나, 주석서 집필은 전문출판사가 집필자를 모집하여 집필하는 것이 주석서의 객관성 측면에서 적합하다.

• 조사내용 2: 주석서를 통한 법률해석의 해결 정도

주석서 이용 목적은 새로운 사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법리를 찾고 전체적인 판례와 학설의 흐름을 파악하고 주어진 사건의 쟁점에 대한 결론을 얻기 위해 주석서를 참고하며 비교법 자료를 찾아 쟁점의 발굴과 법리적 판단을 위해 이용한다. 또한, 주석서는 전체적인 학술 연구의 쟁점사항에 대한 법리와 결론에 이르기

위한 단계에서 이용하므로 어려운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해결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 연구질문 2. 법률가의 특성에 따라 주석서 이용행태는 차이가 있는가?

• 조사내용 3: 법률해석에 있어서 주석서의 중요성

주석서는 법률해석 시 이용하는 중요 법률정보원이다. 이에 대하여 주석서 활용도는 첫째, 법률가는 <표 8~9>와 같이 자료수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투입시간은 법학자가 법관 등 법조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하며, 근무연수가 낮을수록 투입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법률해석을 위해 주석서의 매체별 이용 비율은 <표 10~11>과 같이 직업별로 변호사, 법학자가 인쇄물 이용비율이 높고, 근무연수별

<표 8> 직업별 법률해석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검색하는 데 따른 투입시간 차이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법 관 ^a	43	25.8	12.4	3.401*	.019	d>a,c
검 사 ^b	56	28.0	15.4			
변호사 ^c	38	25.8	12.9			
법학자 ^d	32	36.3	22.1			

* p<.05

<표 9> 근무연수별 법률해석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검색하는 데 따른 투입시간 차이

근무연수	N	평균	표준편차	F	p
5년 이하	37	29.2	14.4	.717	.543
5 ~ 10년	23	27.0	14.3		
10 ~ 20년	61	30.5	18.4		
20년 이상	48	26.3	15.0		

<표 10> 직업별 법률해석을 위해 관련된 자료의 매체별 이용비율 차이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인쇄물(책자)	법 관a	43	45.6	27.2	3.452*	.018	d>b
	검 사b	42	30.5	22.7			
	변호사c	34	43.6	31.7			
	법학자d	29	48.6	25.7			
온라인	법 관	39	43.2	21.6	.967	.410	
	검 사	43	44.4	24.6			
	변호사	32	38.1	24.4			
	법학자	27	36.5	18.7			
인터넷	법 관a	27	17.5	15.6	6.327***	.001	b>a,d
	검 사b	40	38.1	28.1			
	변호사c	30	24.3	14.5			
	법학자d	22	22.3	16.8			
기타	법 관	13	7.9	3.4	1.294	.292	
	검 사	13	16.9	19.6			
	변호사	6	13.3	8.2			
	법학자	7	9.4	5.8			

* p<.05, *** p<.001

<표 11> 근무연수별 법률해석을 위해 관련된 자료의 매체별 이용비율 차이

근무 연수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인쇄물(책자)	5년 이하a	27	27.6	21.9	5.746***	.001	d>a
	5 ~ 10년b	19	34.0	23.0			
	10 ~ 20년c	57	41.7	27.8			
	20년 이상d	45	52.6	27.8			
온라인	5년 이하	31	43.2	23.2	1.795	.151	
	5 ~ 10년	21	50.0	21.7			
	10 ~ 20년	51	39.7	22.9			
	20년 이상	38	36.5	22.0			
인터넷	5년 이하a	28	35.7	27.2	3.656*	.015	a>d
	5 ~ 10년b	14	28.2	16.6			
	10 ~ 20년c	45	27.9	23.3			
	20년 이상d	32	17.7	12.4			
기타	5년 이하	7	18.6	27.2	.869	.466	
	5 ~ 10년	4	10.0	0.0			
	10 ~ 20년	16	9.6	6.2			
	20년 이상	12	12.1	6.6			

* p<.05, *** p<.001

로는 10년 이하의 젊은 법률가의 온라인 비중이 높았으며, 전문분야별로는 민·상사자료의 책자 자료가 많이 이용되어 매체별 이용은 각각 차이가 있다.

셋째, 통일된 법률자료의 필요성을 직업, 근무연수, 전공, 전문분야별로 확인해본 결과 <표 12>와 같이 직업에 따라서는 검사, 근무연수에 따라서는 근무연수가 10년 이상보다 10년 이하인 집단이 통일된 법률해석 자료의 필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학부전공에 따라서는 법학 전공자보다 비전공자가, 전문분야에 따라서는 형사가 통일된 법률해석 자료의 필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넷째, 법률해석을 위하여 가장 먼저 이용하는 정보원은 법률해석 시 법령집(법전)을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으로는 주석서가 중요 정보원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직업별로 법률해석을 위하여 이용하

는 정보 중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은 내부 시스템이고 가장 신뢰가 낮은 것은 <표 13>과 같이 SNS 정보로 나타났으며 상사 및 동료와의 논의는 직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조사내용 4: 국내 주석서와 외국 주석서에 대한 법률가의 이용정도

외국 주석서는 오래전부터 책자 형태와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정판은 초판을 계속하여 수정 보완하는 식으로 제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법률가는 첫째, 외국 주석서 이용과 관련하여 <표 14>와 같이 법관 및 법학자가 일본 주석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의 직업별 외국 주석서 이용은 낮게 나타났다.

둘째, 외국 주석서 이용 이유는 <표 15>와 같이 법관과 변호사가 재판업무와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이용하고 법학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직업별 통일된 법률해석 자료 필요 정도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직업별	법 관	44	3.7	0.8	.663	.576
	검 사	56	3.9	0.8		
	변호사	38	3.7	1.0		
	법학자	30	3.7	1.0		
근무연수	5년 이하	37	3.8	0.6	.119	.949
	5 ~ 10년	23	3.8	0.8		
	10 ~ 20년	60	3.7	1.0		
	20년 이상	48	3.7	1.0		
학부전공	법 학	137	3.7	0.9	-.760	.448
	비전공	31	3.9	0.8		
전문분야별	민·상사	71	3.6	1.0	1.828	.146
	형 사	65	3.9	0.8		
	특 별	32	3.8	0.8		

〈표 13〉 직업에 따른 법률해석을 위하여 가장 신뢰하는 채널 차이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인터넷 검색	법 관a	40	3.3	0.8	4.335**	.006	b,d>a
	검 사b	55	3.9	0.8			
	변호사c	36	3.7	1.0			
	법학자d	31	4.0	0.9			
도서관 방문	법 관a	40	3.7	0.8	3.128*	.027	d>a
	검 사b	55	4.1	1.0			
	변호사c	34	4.2	0.9			
	법학자d	30	4.2	0.8			
내부검색 시스템	법 관a	44	4.9	0.3	5.736***	.001	a>c
	검 사b	54	4.5	0.7			
	변호사c	35	4.3	0.8			
	법학자d	29	4.5	0.9			
직장 상사 및 동료 등	법 관a	41	3.8	0.7	6.678***	.000	a,b>d
	검 사b	54	3.8	0.8			
	변호사c	32	3.5	0.7			
	법학자d	24	3.0	0.8			
SNS의 메시지를 통한 수집	법 관	37	1.8	0.7	1.368	.255	
	검 사	52	2.2	0.9			
	변호사	31	1.8	1.1			
	법학자	23	2.2	1.2			
기타	법 관	1	3.0	.	2.635	.078	
	검 사	15	2.3	0.8			
	변호사	2	1.0	0.0			
	법학자	6	3.0	1.3			

〈표 14〉 국가별 외국 주석서 이용 경험 차이

국가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독일a	157	2.2	1.3	26.136***	.000	a,d,f> b,c,e,g
프랑스b	149	1.6	0.8			
유럽연합(EU)c	148	1.6	0.9			
미국d	158	2.3	1.3			
영국e	149	1.7	0.9			
일본f	158	2.6	1.4			
중국g	147	1.4	0.6			

*** p<.001

〈표 15〉 직업별 외국 주석서 이용 이유 교차표

이용목적 직업	이유						전체	χ ²	p
	재판업무	외국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법행정 (송무, 법정 등) 업무	학술활동	기타	기타			
법 관	28(75.7)	3(8.1)	1(2.7)	5(13.5)	0(0.0)	37(100.0)	79.060***	.000	
검 사	2(9.1)	12(54.5)	7(31.8)	0(0.0)	1(4.5)	22(100.0)			
변호사	13(56.5)	6(26.1)	3(13.0)	0(0.0)	1(4.3)	23(100.0)			
법학자	3(10.3)	8(27.6)	1(3.4)	16(55.2)	1(3.4)	29(100.0)			

* 셀이 5 이하인 경우 피셔의 정확한 검정값 사용. *** p<.001

셋째, 법률의 개정이나 판례 변경 대한 제공 형태는 <표 16>과 같이 시스템과 프린트물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 연구질문 3. 주석서의 정보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

• 조사내용 5: 주석서 검색과 이용
주석서를 통한 정보수집에서 법률가들의 의견을 직업별로 확인해본 결과 <표 17>과 같이 법관, 검사, 변호사의 경우 재판 및 연구업무 수행 중 발생한 현안문제 해결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법학자의 경우 전반적인 연구 동향 파악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조사내용 6: 주석서 서비스 유형
주석서 서비스 유형과 관련하여 첫째, 이용자 입장에서 현재의 주석서 서비스 변경은 <표 18>과 같이 직업에 따라서는 변호사가, 근무연수에 따라서는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집단이, 학부전공에 따라서는 비전공자보다 법학 전공자가 온라인에서 법률가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및 수집으로 집단지성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석서의 온라인화에 대한 찬성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석서 이용방법은 온라인형태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 19>와 같이 직업, 근무연수, 학부전공과 무관하게 법률가들은 공통적으로 온라인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셋째, 주석서 정보제공의 온라인화 변경 시 이용 의사는 <표 20>과 같이 직업에 따라서는 검사가, 근무연수에 따라서는 근무연수가 5년 이상인 집단보다 5년 이하인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부전공에 따라서는 비전공자보다 법학 전공자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직업, 근무연수, 학부 전공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넷째, 주석서의 인쇄물 형태 선호 이유를 확인해본 결과 <표 21>과 같이 기존에 사용하던 인쇄물 이용 방식이 온라인 자료보다 익숙하다는 의견이 직업, 근무연수, 학부전공과 상관없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주석서 온라인 형태 선호 이유는 <표 22>와 같이 직업, 근무연수, 학부전공에 따라서는 온라인 정보의 접근범위가 인쇄물 정보보다 편리해서 선호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직업, 근무연수, 학부 전공별로 차이가 없다.

• 조사내용 7: 온라인 주석서의 서비스 제공 방식

주석서를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경우 첫째,

<표 16> 외국 주석서의 새로운 판례와 법이론 제공 형태 빈도표

	빈도	비율
시스템에서 전체적인 목록으로 제공	18	22.0
별도 프린트물(추록) 제공	17	20.7
주석서의 해당 내용에 표시	25	30.5
기타	22	26.8
합계	82	100.0

〈표 17〉 직업별 주석서를 통한 정보수집 시 법률가의 의견 차이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재판 및 연구업무 수행 중 발생한 현안 문제 해결	법 관	43	3.7	0.5	2.564	.057	
	검 사	54	3.5	0.6			
	변호사	38	3.6	0.7			
	법학자	29	3.3	0.7			
새로운 분야 연구	법 관	38	3.1	0.5	.476	0699	
	검 사	49	3.0	0.5			
	변호사	29	3.0	0.8			
	법학자	26	3.1	0.7			
논문 및 보고서 작성	법 관a	39	3.5	0.6	2.746*	.045	d>b
	검 사b	49	3.2	0.5			
	변호사c	30	3.4	0.8			
	법학자d	28	3.5	0.6			
개인적 관심분야에 대한 자료 수집	법 관	38	3.2	0.6	.265	.851	
	검 사	48	3.1	0.6			
	변호사	31	3.1	0.8			
	법학자	27	3.2	0.9			
전반적인 연구동향 파악	법 관	38	3.2	0.7	2.135	.099	
	검 사	47	3.1	0.7			
	변호사	29	3.2	0.8			
	법학자	28	3.5	0.7			
상사/동료의 지식 추천 및 교류	법 관	37	3.1	0.6	.298	.827	
	검 사	47	3.1	0.7			
	변호사	27	3.0	0.9			
	법학자	24	2.9	0.8			

* p<.05

〈표 18〉 직업, 근무연수, 학부 전공별 현 주석서의 서비스 형태 변경의견 교차표

[단위: 명(%)]

		현재와 같은 책 자(인쇄물) 형태 를 그대로 유지	온라인에서 단지 읽을 수 있도록 제공	온라인에서 이용자 들이 자유롭게 의 견을 올리고 토의	온라인에서 법률가 의 자유로운 의견 개 진 및 수집으로 집단 지성으로 운영	전체	χ^2	p
직업	법 관	11(25.0)	11(25.0)	10(22.7)	12(27.3)	44(100.0)	18.830	.093
	검 사	8(15.7)	21(41.2)	10(19.6)	12(23.5)	51(100.0)		
	변호사	8(21.6)	5(13.5)	7(18.9)	17(45.9)	37(100.0)		
	법학자	2(7.4)	7(25.9)	6(22.2)	12(44.4)	27(100.0)		
근무 연수	5년 이하	3(8.6)	9(25.7)	9(25.7)	14(40.0)	35(100.0)	16.130	.185
	5 ~ 10년	7(30.4)	9(39.1)	2(8.7)	5(21.7)	23(100.0)		
	10 ~ 20년	8(14.3)	19(33.9)	11(19.6)	18(32.1)	56(100.0)		
	20년 이상	11(24.4)	7(15.6)	11(24.4)	16(35.6)	45(100.0)		
전공	법 학	21(16.2)	37(28.5)	28(21.5)	44(33.8)	130(100.0)	2.190	.701
	비전공	8(27.6)	7(24.1)	5(17.2)	9(31.0)	29(100.0)		

* 셀이 5 이하인 경우 피셔의 정확한 검정값 사용

〈표 19〉 직업, 근무연수, 전공별 주석서 이용방법의 온라인형태 변경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F	p
직업	법 관	44	3.9	.9	-	.709	.548
	검 사	55	4.1	.9			
	변호사	38	4.2	.9			
	법학자	29	4.2	.8			
근무연수	5년 이하	36	4.4	0.8	-	1.676	.174
	5 ~ 10년	23	4.0	1.0			
	10 ~ 20년	60	4.0	0.9			
	20년 이상	47	4.0	0.9			
전공	법 학	135	4.1	0.9	1.10	-	.272
	비전공	31	3.9	1.1			

〈표 20〉 직업, 근무연수, 전공별 주석서 정보제공의 온라인화 변경 시 이용도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F	p
직업	법 관	42	3.7	1.3	-	1.645	.181
	검 사	53	4.2	1.1			
	변호사	34	3.8	1.6			
	법학자	30	3.8	1.3			
근무연수	5년 이하	36	4.3	1.0	-	1.814	.147
	5 ~ 10년	23	3.8	1.4			
	10 ~ 20년	57	3.9	1.3			
	20년 이상	43	3.7	1.5			
전공	법 학	128	4.0	1.3	1.428	-	.155
	비전공	31	3.6	1.5			

〈표 21〉 직업, 근무연수, 학부 전공별 주석서의 인쇄물 형태 선호이유 교차표

[단위: 명(%)]

		인쇄물 이용이 온라인 자료보다 익숙	온라인 정보 이용 방법을 모름	인쇄물 형태가 접근하기 쉬워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되고 있는지 몰라서	전체	χ^2	p
직업	법 관	6(75.0)	0(0.0)	1(12.5)	1(12.5)	8(100.0)	16.174*	.021
	검 사	0(0.0)	1(20.0)	4(80.0)	0(0.0)	5(100.0)		
	변호사	6(50.0)	0(0.0)	4(33.3)	2(16.7)	12(100.0)		
	법학자	4(80.0)	1(20.0)	0(0.0)	0(0.0)	5(100.0)		
근무연수	5년 이하	2(50.0)	0(0.0)	2(50.0)	0(0.0)	4(100.0)	7.083	.746
	5 ~ 10년	1(25.0)	1(25.0)	2(50.0)	0(0.0)	4(100.0)		
	10 ~ 20년	6(60.0)	0(0.0)	2(20.0)	2(20.0)	10(100.0)		
	20년 이상	7(58.3)	1(8.3)	3(25.0)	1(8.3)	12(100.0)		
전공	법 학	14(63.6)	1(4.5)	5(22.7)	2(9.1)	22(100.0)	3.722	.174
	비전공	2(25.0)	1(12.5)	4(50.0)	1(12.5)	8(100.0)		

* 셀이 5 이하인 경우 피셔의 정확한 검정값 사용. * $p < .05$

〈표 22〉 직업, 근무연수, 학부 전공별 주석서의 인쇄물 형태 선호이유 교차표

[단위: 명(%)]

		온라인 정보이용 이 인쇄물 자료보 다 더 익숙해서 (검색의 다양성)	온라인 정보의 접 근범위(시간, 장소 등)가 인쇄물 정보 보다 편리해서	온라인 정보가 인 쇄물보다 더 많고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어서	온라인 정보가 인 쇄물 정보보다 갱 신이 빨라서	전체	χ^2	p
직업	법 관	3(14.3)	12(57.1)	2(9.5)	4(19.0)	21(100.0)	4.915	.777
	검 사	4(10.8)	29(78.4)	1(2.7)	3(8.1)	37(100.0)		
	변호사	2(8.7)	15(65.2)	2(8.7)	4(17.4)	23(100.0)		
	법학자	3(15.8)	12(63.2)	2(10.5)	2(10.5)	19(100.0)		
근무 연수	5년 이하	4(13.8)	19(65.5)	1(3.4)	5(17.2)	29(100.0)	5.714	.785
	5 ~ 10년	0(0.0)	10(83.3)	1(8.3)	1(8.3)	12(100.0)		
	10 ~ 20년	4(11.8)	25(73.5)	2(5.9)	3(8.8)	34(100.0)		
	20년 이상	4(16.0)	14(56.0)	3(12.0)	4(16.0)	25(100.0)		
전공	법 학	11(12.9)	54(63.5)	7(8.2)	13(15.3)	85(100.0)	5.613	.172
	비전공	1(6.7)	14(93.3)	0(0.0)	0(0.0)	15(100.0)		

* 셀이 5 이하인 경우 피서의 정확한 검정값 사용

기존 주석서의 개정판 작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한 결과 〈표 23〉과 같이 ① 직업별로 검사와 변호사는 관련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방안이 가장 높았으며, 법관과 교수에게는 모든 의견이 균등하게 나타났다. ② 근무연수의 모든 연차에서 관련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방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③ 전공과 관계 없이 관련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방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법률가는 주석서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첫째, 주석서의 개정판 작업은 직업, 근무연수, 학부전공으로 확인한 결과 직업별로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방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주석서 이용은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나 소속 도서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주석서는 화면으로 읽고 끝내거나 출력 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내용 8: 주석서 이용과 활용도

주석서의 이용과 활용도에서 첫째, 법률가가 주석서를 공동으로 집필하는 데 있어 학술적 교류의 확대를 직업, 근무연수, 전공에 상관없이 대부분 법률가는 공동 집필 시 법률가들의 교류가 자주 확대된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주석서 서비스를 적극 확대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표 24〉와 같이 최신 판례의 공개 확대(51.6%), 주석서 등 공동 집필(24.2%)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판례공개와 쟁점사항에 대한 공개가 법률가의 협력 정도에 대해서 〈표 25〉와 같이 직업에 따라서는 변호사, 법학자가 법관, 검사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주석서 이용 시 법률가가 협력(융합)하여 공동관심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집단지성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표 26〉과 같이 직업별로, 검사, 변호사, 법학자는 대부분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표 23〉 직업, 근무연수, 전공별 기존 주석서의 개정판 작업 의견 교차표

[단위: 명(%)]

		본문을 유지하되 이용자들의 의견 과 토론을 가능하 게 변경	본문을 수정하되 집 단지성의 개념이 가 능하도록 변경	원본과 집단지성 을 함께 가능하도 록 변경	관련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을 일목 요연하게 볼 수 있 는 방안	전체	χ^2	p
직업	법 관	14(35.9)	3(7.7)	10(25.6)	12(30.8)	39(100.0)	23.311**	.006
	검 사	3(5.5)	3(5.5)	13(23.6)	36(65.5)	55(100.0)		
	변호사	9(24.3)	0(0.0)	9(24.3)	19(51.4)	37(100.0)		
	법학자	7(24.1)	4(13.8)	8(27.6)	10(34.5)	29(100.0)		
근무 연수	5년 이하	4(10.8)	1(2.7)	13(35.1)	19(51.4)	37(100.0)	14.680	.100
	5 ~ 10년	2(8.7)	2(8.7)	3(13.0)	16(69.6)	23(100.0)		
	10 ~ 20년	18(32.1)	3(5.4)	13(23.2)	22(39.3)	56(100.0)		
	20년 이상	9(20.5)	4(9.1)	11(25.0)	20(45.5)	44(100.0)		
전공	법 학	27(20.9)	9(7.0)	33(25.6)	60(46.5)	129(100.0)	1.043	.791
	비전공	6(19.4)	1(3.2)	7(22.6)	17(54.8)	31(100.0)		

* 셀이 5 이하인 경우 피셔의 정확한 검정값 사용. ** $p < .01$

〈표 24〉 주석서 서비스 확대 방안

	빈도	비율
최신 판례 공개의 확대	83	51.6
재판중인 판결에 대한 쟁점 사항 공개	19	11.8
법률가 공동 학술회이나 세미나 개최	19	11.8
주석서 등 공동 집필	39	24.2
기타	1	.6
합계	161	100.0

〈표 25〉 판례에 대한 평이 가능한 쟁점 협력정도 차이

직업별	N	평균	표준편차	F	p
법 관	43	3.7	0.8	1.296	.278
검 사	54	3.6	0.8		
변호사	38	3.9	0.7		
법학자	29	3.9	0.6		

〈표 26〉 직업, 근무연수, 전공별 집단지성 변화 관심도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F	p	Scheffe
직업	법 관	43	3.3	1.0	-	5.025***	.002	c,d)a
	검 사	56	3.5	0.7				
	변호사	38	3.8	0.8				
	법학자	30	3.9	0.7				
근무연수	5년 이하	37	3.8	0.7	-	2.323	.075	
	5 ~ 10년	23	3.2	0.7				
	10 ~ 20년	60	3.6	0.9				
	20년 이상	47	3.7	0.8				
전공	법 학	136	3.6	0.9	.609		.544	
	비전공	31	3.5	0.8				

*** $p < .01$

〈표 27〉 직업, 근무연수, 전공별 집단지성 활성화 방안 교차표(다중응답)

[단위: 명(%)]

		콘텐츠 내용에 대한 최신성 유지	다수 의견 게재자 관리	이용자의 지식활동 후보	오프라인 모임 활성화	전체
직업	법 관	21(61.8)	7(20.6)	5(14.7)	1(2.9)	34(100.0)
	검 사	35(72.9)	4(8.3)	4(8.3)	5(10.4)	48(100.0)
	변호사	31(81.6)	2(5.3)	2(5.3)	3(7.9)	38(100.0)
	법학자	17(65.4)	4(15.4)	2(7.7)	3(11.5)	26(100.0)
근무연수	5년 이하	26(78.8)	1(3.0)	4(12.1)	2(6.1)	33(100.0)
	5 ~ 10년	15(75.0)	1(5.0)	3(15.0)	1(5.0)	20(100.0)
	10 ~ 20년	39(73.6)	8(15.1)	3(5.7)	3(5.7)	53(100.0)
	20년 이상	24(60.0)	7(17.5)	3(7.5)	6(15.0)	40(100.0)
전공	법 학	81(69.8)	14(12.1)	11(9.5)	10(8.6)	116(100.0)
	비전공	23(76.7)	3(10.0)	2(6.7)	2(6.7)	30(100.0)

법관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근무연수와 전공별로 관심도에 대한 차이는 없었다.

다섯째, 주석서 이용에 따른 집단지성 참여가 소극적인 경우 활성화 방안은 〈표 27〉과 같이 최신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주석서를 통한 법률가의 다양한 협력 방안 모색에서 법률가는 주석서를 공동 집필하므로 학술교류가 직업별, 근무연수별, 전공에 상관없이 확대된다고 응답하였다. 주석서 이용시 법률가의 협력과 공동관심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집단지성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한 의견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지성 참여가 소극적인 경우 활성화 방안은 콘텐츠 내용에 대한 최신성 유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법률가는 법률정보를 통하여 법률을 해석하고 이를 적용한다. 법률해석은 입법 당시와 현

재의 국내외 법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해석을 위한 주요 정보원은 법관, 검사, 변호사, 법학자 등 법률가가 공동으로 집필한 주석서이다.

주석서 이용행태는 법률해석에 대한 기본 도서로 인식하지만, 법률가의 개인적 연구관심과 최신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직업에 따라 이용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주석서를 통한 법률해석의 해결 정도는 어려운 부분을 모두 해결하지는 못하나, 문제 해결의 단서를 제공한다고 답변하였다.

법률해석을 위하여 가장 먼저 이용하는 정보원은 기본적으로 법령집(법전)이고 그다음 중요 정보원은 주석서로 조사되었다. 외국 주석서는 외국 사례 조사나 집필을 위해 사용되고 그 외의 이용도는 낮게 나타났다.

주석서의 정보제공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은 주석서 이용 시 출판 이후 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판례와 법이론이 발표되었을 때 그리고 다른 법률가의 의견 등을 공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 주석서 서비스 유형

에 대하여 주석서는 책자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온라인에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올리고 토의할 수 있도록 운영(기존 주석서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여기서 최신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을 올리고 의견을 나누는 서비스)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률가는 재판업무와 법학연구를 위하여 현재의 법의 상태를 항상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인쇄물 등 오프라인에서는 이와 같은 작업이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법률가인 법관, 검사, 변호사, 법학자가 온라인상에서 법률해석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집단지성 형태의 주석서에 대한 법률정보 서비스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민구 (2003). 함께 하는 법정 - 21세기 사법정보화와 열린 재판 -. 서울: 박영사.
- 곽윤직 (1992). 민법주해(제1권). 서울: 박영사.
- 김광진 (1996). 법조인의 법률정보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나원, 박지홍 (2009). 의사들의 의료정보추구행태에 관한 탐구. 정보관리학회지, 26(3), 435-449. <http://dx.doi.org/10.3743/KOSIM.2009.26.3.435>
- 김남희 (2009). 라이브러리2.0 기반 법률도서관 서비스 모델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지식경영학과.
- 김민규 (2013). 법률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이용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정숙 (2010).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학업 관련 정보탐색과정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증환 (1973). (학설·판례)주석민법(상). 서울: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지현 (2015). 변호사의 법무실무를 위한 법률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황우 (2012).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문용호 (1998). 정보화와 재판실무(법률정보 검색의 현황과 장애). 재판자료, 79, 303-304.
- 이지연 (2006). 정보이용행태 모형개발 및 적용. 제13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5-10.
- 전경근 (2004). 법정정보학강의. 서울: 박영사.

- 정상조 (2007). 저작권법주해. 서울: 박영사.
- 정상조, 박성수 (2010). 특허법주해. 서울: 박영사.
- 주민지 (2013).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최미순 (2007). 법조인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동향 고찰. 도서관, 62(2), 25-30.
- 한승희, 이지연 (2006).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의 정보요구별 탐색행태 분석. 제13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7-22.
- Chancellor, R. (2010). Legal information seeking in a time-constrained environment: A conceptual model for lawyers. *International Journal of Legal Information*, 38(3), 282-294. <https://doi:10.1017/S0731126500005886>
- Chancellor, R. (2015). Getting it from the source: What librarians think about lawyer search behavior. *Law Library Journal*, 107(2), 287-295.
- Choo. (1998). *The knowing organization: How organizations use information to construct meaning, create knowledge, and make decis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ole, C., Carol C. Kuhlthau. (2000).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eeking of novice versus expert lawyers: How experts and value. *The New Review of Information Behaviour Research*, 1, 103-116.
- Ellis, D. (1989). A behavioral model for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design.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15(4-5), 237-247.
- Hainsworth, Melody May (1992).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judge of the florida district courts of appea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USA.
- Hong, M. J. (1997). Information needs and research behavior of legal professionals in Korea. *도서관학논집*, 26, 291-331.
- Kadli, Jayadev H; Hanchinal, Veeresh B. (2015). Information seeking behaviour of law students in the changing digital environment. *DESIDOC Journal of Library & Information Technology*, 35(1), 61-68. <https://doi.org/10.14429/djlit.35.1.8099>
- Leckie, Gloria J., Pettigrew, Karen E., & Sylvain, Christian (1996). Modeling the information seeking of professionals: A general model derived from research on engineers,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lawyers. *The Library Quarterly: Information, Community, Policy*, 66(2), 180. <https://doi.org/10.1086/602864>
- Makri, S. (2008). *A study of lawyers' information behaviour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two methods for evaluating electronic resource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University College London. Retrieved from <https://openaccess.city.ac.uk/id/eprint/2337/1/MakriPhD.pdf>

- Makri, S., Blandford, A., & Cox, A. L. (2008). Investigating the information-seeking behaviour of academic lawyers: From ellis's model to design.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44(2), 613-634. <https://doi.org/10.1016/j.ipm.2007.05.001>
- Otike, Japhet (1999). The information needs and seeking habits of lawyers in england: A pilot study.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 Library Review*, 31(1), 19-39. <https://doi.org/10.1080/10572317.1999.10762486>
- Rai, P. (2013).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legal researcher towards use of electronic legal resource: a study. *Proceedings of the 9th International CALIBER, INFLIBNET Centre, Gandhinagar, March 21-23*, 62-73.
- Solomon, Y., Bronstein, J. (2016). Serendipity in legal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slib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68(1), 112-134. <https://doi.org/10.1108/ajim-04-2015-0056>
- Sutton, S. (1994). The role of attorney mental models of law in case relevance determinations: an exploratory 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5, 186-200.
- Thanuskodi, S. (2009). Information-seeking behaviour of law faculty at central law college, salem. *Library Philosophy and Practice*. Retrieved from <http://digitalcommons.unl.edu/libphilprac/282>
- Vale, M. E. (1988). Information structure and th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lawy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ation,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USA.
- Wilkinson, M. A. (2001). Information sources used by lawyers in problem-solving: An empirical exploratio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3, 257-276. [https://doi.org/10.1016/s0740-8188\(01\)00082-2](https://doi.org/10.1016/s0740-8188(01)00082-2)
- Wilson, T. D. (2000). Human information behavior. *Information Science*, 3(2), 49-55. <https://doi.org/10.28945/576>
- Winter, S. (2008). Law firm libraries in the 21st century. *Legal Information Management*, 8(1), 28-31. <https://doi.org/10.1017/s1472669608000066>

<p>•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p>
--

- Choi, Mi-soon (2007). A review of the research trends on th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legal professionals. *DOSEOGWAN*, 62(2), 25-30.
- Han, Seung-Hee, & Lee Jee Yeon (2006). Searching behavior of scientists and technologists

- based on their information needs. Proceedings of the 13th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7-22.
- Hong, M. J. (1997). Information needs and research behavior of legal professionals in Korea. *Annual Review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 291-331.
- Jong, Sang-Jo (2007). *Copyright law commentary*. Seoul: Pakyungsa.
- Jong, Sang-Jo, & Park Seong Soo (2010). *Patent law commentary*. Seoul: Pakyungsa.
- Ju, Min-Ji (2013). Information needs and information-seeking behaviors of law school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Jun, Gyung-Gun (2004). *Lectures on the law information*. Seoul: Pakyungsa.
- Kang, Min-Koo (2003). *Unified Court - The 21st century open trial court with judicial information*. Seoul: Pakyungsa.
- Kim, Hwang-Woo (2012). A study of th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of law school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Kim, Ji-Hyun (2015). A study on the lawyer's legal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for the law practi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Major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Kim, Jung-Suk (2010). Studying law school students' information search process related to schoolwork. Sung kyun kwan Universit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Kim, Kwang-Jin (1996). A study on the user behavior of legal information by legal practitioners. Graduate School of Sung Kyun Kwan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 Kim, Min-Gyu (2013). A study on information use attitudes of legal information service users.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Kim, Nam-Hee (2009). A study on service model of law library based on library 2.0.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 Soongsil University, Department of Knowledge Management.
- Kim, Na-Won, & Park, Ji-Hong (2009). Exploring medical doctors' medical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3), 435-449. <http://dx.doi.org/10.3743/KOSIM.2009.26.3.435>
- Kim, Zeung-Han (1973). (Theory · Case) *Civil law commentary(1)*. Seoul: Korea Institute Judicial Administrative.
- Kwak, Yoon-Jik (1992). *Civil law commentary(1)*. Seoul: Pakyungsa.
- Lee, Jee-Yeon (2006). An overview of developing & applying information use behavior models.

Proceedings of the 13th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5-10.
Moon, Yong-Ho (1998). Informatization and its impact on Judicial Practice (The present status
and the future views about search for legal informations). Judicial Materials, 79, 303-304.

